

생각의 \_\_\_\_\_

일상의 \_\_\_\_\_

행동의 \_\_\_\_\_

< 들어가며 >

- **자신** . **자신을** **변화** 할 의지를 가지고 자신의 생명을 끄는 행위
- **가짜**들이 **조금** **변**을 **바탕**한 **환상**인 **일**을 **겪**었습니다 . **평**과 **다**음 **없**는 **오**함으로 **헤**어졌는데 **한**방공에 **걸**려 온 **전**환을 **받**으며 . '참, 생생한 **꿈**이로군' 이라고 **생**각했습니다 .  
한동안은 **이**해할 **수**가 **없**었고 **한**동안은 **화**가 **났**습니다 .  
남겨 놓은 **동**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글**자들이 **어**려워 **적**어 **있**었습니다 . **그**것들은 **사**실 **이**무것도 **아**니했습니다 . **그**것들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  
**그** **시**가 **지**나고 ' **만**약' 이라는 **시**간이 **착**아 **왔**습니다 .  
' **만**약' **그**때 . **마**지막 **인**사할 **때** **한** **번** **떠**뜻하게 **안**아 **줬**다면  
' **만**약' **그** **시**간에 **변**일 **아**닌 **일**로 **전**환을 **경**어 **안**번을 **물**었더라면  
' **만**약' , ' **만**약' , ' **만**약' .....  
**되**돌릴 **수** **없**는 **일**을 **가**정하며 **지**난 **일**을 **되**짚는 **것**은 **남**겨진 **이**들의 **고**통이었습니다 .  
**그**에게는 **그** **시**간까지가 **고**통이었고 , **남**겨진 **이**들에게는 **그** **시**간부터가 **고**통입니다 .  
**약**밥을 **먹**을 **때** , **등**에 **뺨**이 **돌**아나기 **시**작할 **때** , **산**행상에 **오**를 **때** ,  
' **아** . **이**런 **것**을 **참** **좋**아 **했**었는데 . '라며 **불**죽 **기**억이 **켜**집니다 .  
  
살아있으라 . **누**구든 **살**아있으라 . **피**륙성이라도 **살**아있으라 .  
**노**리저리 **살**아있습니다 . **우**리를 **들**고 **가**기 **말**라고 .  
  
살아있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것**보다 **좋**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 **내**일은 **어**제보다 **나**을 **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 **등**에 **핀** **꽃**을 **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  
**그**러나 **나**는 **당**신이 **살**아있으면 **좋**겠습니다 .  
**노**록히 **많은** **살**을 **살**아내거나 **지**킬 **데**를 **지**킬 **당**신 **영**혼의 **아**름다움이 **궁**금합니다 .  
**어**디까지 **당**신이 **내** **순**된 **숨**이 **바**람을 **타**고 **돌**아 **내** **들**숨으로 **돌**어 **왔**으면 **좋**겠습니다 .  
  
**우**리는 **모**두가 **위**대한 **환**자였다 , **살**아 **있**으라 . **누**구든 **살**아있으라 . -기형도  
  
**살**아서 **만**나십시오 .

아름다운 여자가  
우리의 사랑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장 아름다운

이것이  
사랑의  
정신

平江之野小

平江之野小

平江之野小

平江之野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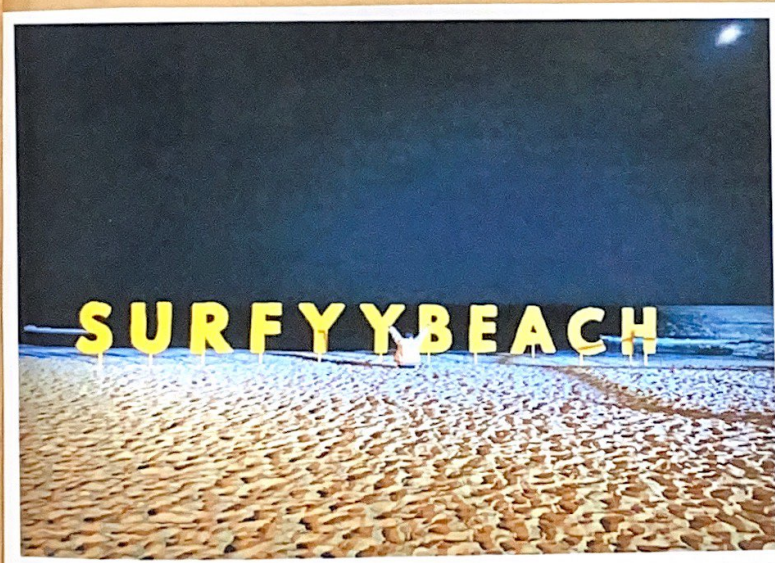


Sign. Signal. 정면명령





사동아님은 글자오래 태어난 글자



## 나를 구했던 그

기형도시인을 좋아합니다.

그의 낱말에는 어떠한 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누구나 쓰는 낱말을 이렇게 저렇게 설계해 누구도 할 수 없는 말을 전하는 시인이 경이로웠습니다.

사랑, 잃다, 쓰다, 밤, 이러한 조합으로 그는

'사랑을 잃고 나는 쓰네

잘 있거라, 째랐던 밤들아!

라는 시구를 설계했으니까요.

그에게는 인간의 인지를 넘어선 상서로움이 깃들어있는게 아닐까 한동안 철없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의 글에는 신탁이 묻어있다고 믿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그가 말했습니다.

'세상은 온통 크레졸 냄새로 자리잡는다. 누가 떠나듯 죽든  
우리는 모두가 위대한 혼자였다. 살아 있으라, 누구든 살아 있으라,  
털털, 짧은 숨 내 쉬며 내부의 아득한 시간의 숨 신뢰하면서  
천국을 믿으면서 혹은 의심하면서 도시, 그 변증의 여름을 벗어나면서!'

한동안 왜 살아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인간은 어쩌면 지구라는 거대한 생명체를 움직이기위한 일회용 건전지에 불과

하지 않을까.

유한한 삶에서 의미와 재미를 찾기 위해 머리를 싸매고 있는 내가 애처로워 보였습니다.

세상은 과연 살아갈만한 가치가 있는가.

내일이 온다고, 내년이 된다고해서 달라지는 것이 있는가.

달라진다고 해도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인가.

어차피 삶은 유한하고, 그 끝을 알 수 없으며, 스러져버리면 그만한 것을.

그때 기형도 시인의 글을 입은 신탁을 받았습니다.

'살아있으라. 천국을 믿으면서 혹은 의심하면서'

의심하면서, 짧은 숨 쉬며.

비록 그는 신화처럼 사라졌지만, 그래서 더욱 그가 남긴 글들을 붙잡게 됩니다.

살아있겠습니다. 아득한 시간의 숨 신뢰하면서.

누군가에게 가 닿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작품을 만들어내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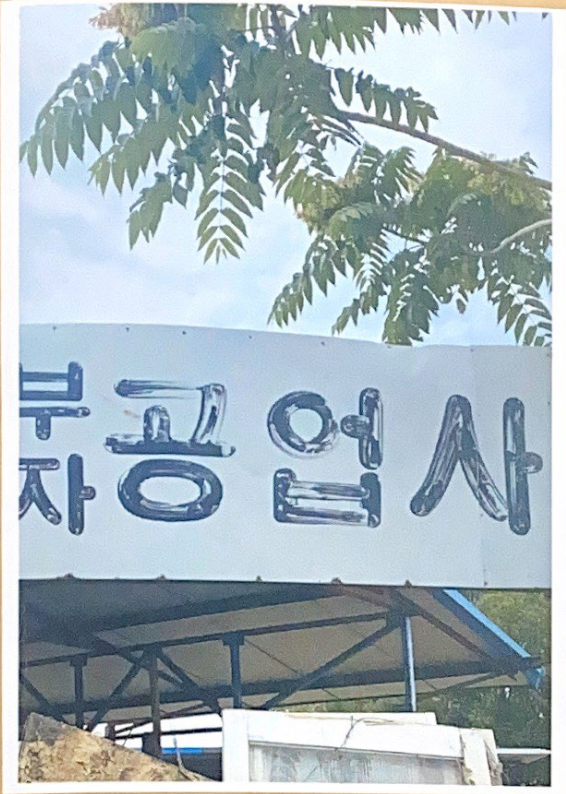
내가  
네 곁으로  
지나가갈 때에  
네가  
피후성이기 되어  
발 것하듯 깃을 보소  
네게 시르기를  
너는  
피후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시르기를  
너는  
피후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살아있으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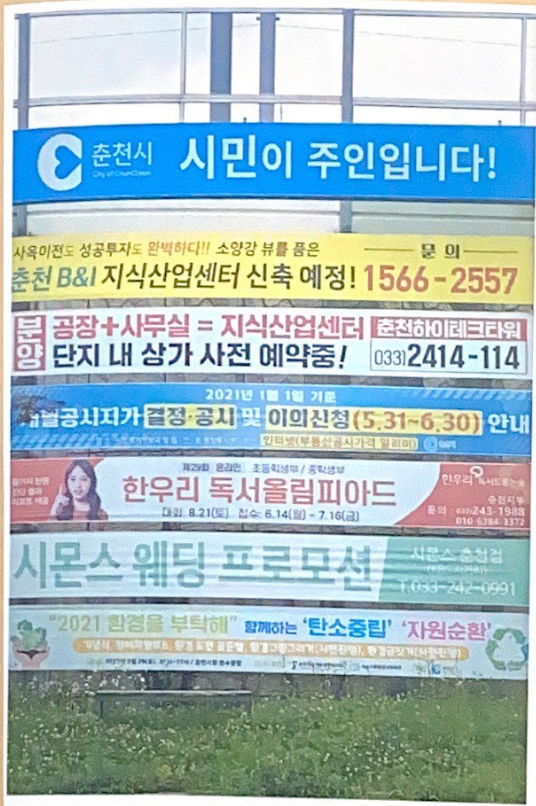
너는

피후생이려도

살아있으려



살아남은 크자들 Part 2.  
단순함이다. 단순함이 생동이다.



길 위의 글자들.

작품이라고 하는 글씨가 어떻게 해야 많은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을까  
궁리하며 지냅니다.

길위에는 이렇게나 많은 글자들이 있는데 그 많은 글자들 중  
더욱 강력하게 닿을 수 있는 것은 어떤 것들일까, 고민하며  
지냅니다.

저에게 글자는 소재입니다. 많은 소재를 수집하고 분류하고 쌓아둡니다.

그 중 오래된 간판에 유독 눈길이 갑니다.

하늘이나 나무처럼 배경이 되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글자들.



세워진 압력을 이긴 글자가 갖는 질긴 생명력에 의해서입니다.

### 정언 명령

칸트는 의지에 주어지는 모든 명령을 두 가지 종류, 가언적인 것과 정언적인 것으로 구분한다. 가언적 명령이 '가능한 행위의 실천적 필연성을 다른 사람들의 의욕하는 어떤 다른 것에 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 표시하는 것'이라면, 정언적 명령은 '한 행위를 그 자체로서, 어떤 다른 목적과 관계없이, 객관적 - 필연적인 것으로 표시하는 그런 명령'이다. 정언명령은 그 자체로 윤리성의 법칙이다.

산  
아  
이  
이  
라

Simple Ver.

모양 간단함으로 쓰일다면?

행

이

의

스

라

□ □ 라스아아사라성  
라로이  
너다  
사  
의  
로  
기  
로  
로

'89.10.20. 170 x 200. 2월 21일

국립대에 가게 된다면 온몸으로  
싸야 할 것이다.

학의 정행으로 보면 아아 몸부림을 치며  
싸야 할 것이다.

몸부림 치는 것.

그것이 살아있는 것이 아닐까



살아있으라

누구든 살아있으라

피로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음료를 하라 무심결에 눈을 돌리는 행주마들처럼 도리에 안배둔거 눈을 돌리면  
볼수있는 글이 되기를 희망해 봄.

## 창작노트를 마치며

두번째 창작노트입니다.

한 번 해보셨기에 이번에는 지난번 보다 근사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머리속은 전혀 근사하지 않았나 봅니다.

노트의 구성을 미리 짜 놓고,

'이런 흐름으로 작품 완성 과정을 보여주세요'

라고 마음 먹었는데, 계획대로 된 것은 없었습니다.

창작노트는 두서 없었고

변죽이는 아이디어도 없었습니다.

결국 그냥 하던대로 하게 되었습니다.

마무리는 푸쉬킨의 시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로 대신하려 합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 말라

슬픔의 날 참고 견디면

기쁨의 날 찾아온다

마음은 미래에 살고

현재는 괴로운 법

모든 것이 순간이고 모든 것이 지나가리니

지나간 모든 것은 아름다우니

- 김건영 교수 번역

지나간 모든 것은 아름다웠다고 말할 수 있는 날  
내 곁에 당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원처럼 보이는 고통은 순간일 뿐입니다.

